

마켓 BEA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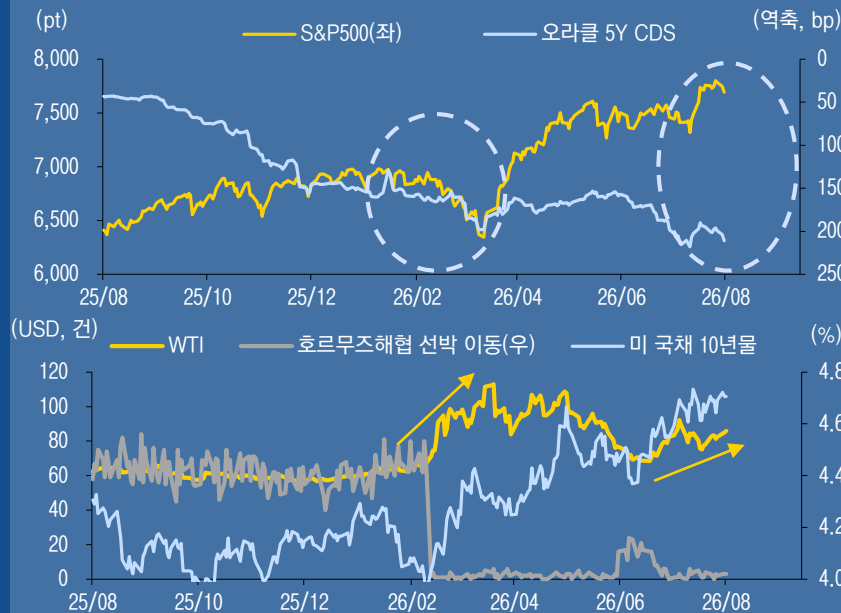


엔비디아 실적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가?

Market
Analyst 황산해
sh.hwang@ls-sec.co.kr



KEY 차트: 유가 상승기, 동조화 되는 AI 버블론과 시장



● 엔비디아 실적, 호재로 소화하기엔 시장의 준비가 부족하다

- 한국 기준 8/27 오전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. AI 주도주로의 이익성장 스토리, AI 생태계의 확장, 기술적 로드맵 등 AI 사이클의 방향성을 잡아줄 것으로 기대하는 시장. 2FQ27 컨센은 EPS \$2.08, 매출 \$91.9B으로 다시한번 역대 최대 실적 예상
- 그러나 엔비디아의 실적과 어닝콜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받아들이는 시장의 환경. 호재로 소화할지, AI 버블론 또는 AI 사이클의 비용부담으로 인식할지 여부는 r (금리, 비용)과 g (경기, 성장)의 함수가 결정. 당장의 환경은 비우호적 요인들이 우세
- 유가 상승기, 즉 불확실성과 비용적 부담이 강해지는 기간에 AI 버블론의 우려는 시장과 동조화. 반면 유가 및 금리가 안정화될 시기에는 테크기업들의 CDS 부담에도 증시는 안정적 상승세를 보임. 이는 시장은 이미 레버리지 기반의 AI 사이클을 인지하고 있으며 매크로 환경과 불확실성에 따라 AI 버블론의 부담을 선택적으로 반영한다는 의미

● 스포트라이트는 엔비디아보다 엔비디아 생태계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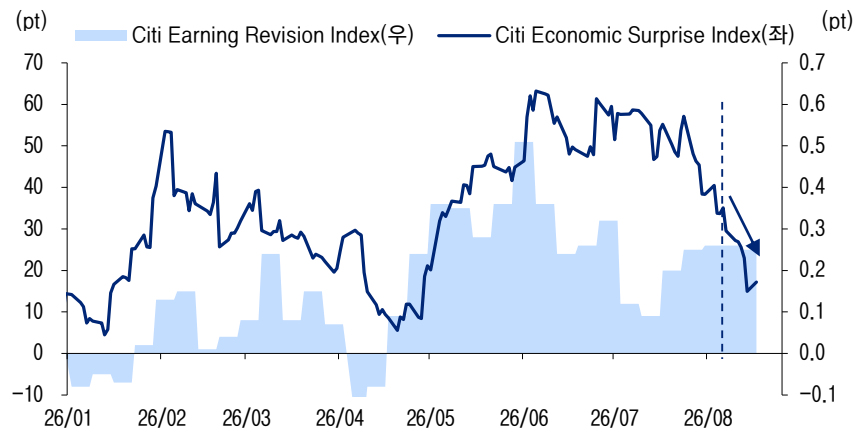
- 하이퍼스케일러들이 CAPEX 상향으로 AI 사이클을 증명한다면, 엔비디아는 투자 활동과 M&A로 AI 사이클의 지속가능성을 지탱. 빅테크들의 CAPEX 확대가 반도체의 호재인 것처럼 엔비디아의 견조한 이익은 엔비디아보다 순환금융의 파트너사들, 엔비디아 생태계의 참여자들의 수혜로 해석될 가능성
- 국내의 경우 26년부터 엔비디아 호실적의 수혜주가 반도체에서 로봇, 전력기기, 냉각, 전장, 건설, S/W 등으로 확산. 그룹사 중에서는 LG와 두산 주목

시장 상황 점검, 엔비디아 실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

● AI 버블론과 유가를 동시에 감당하고있는 시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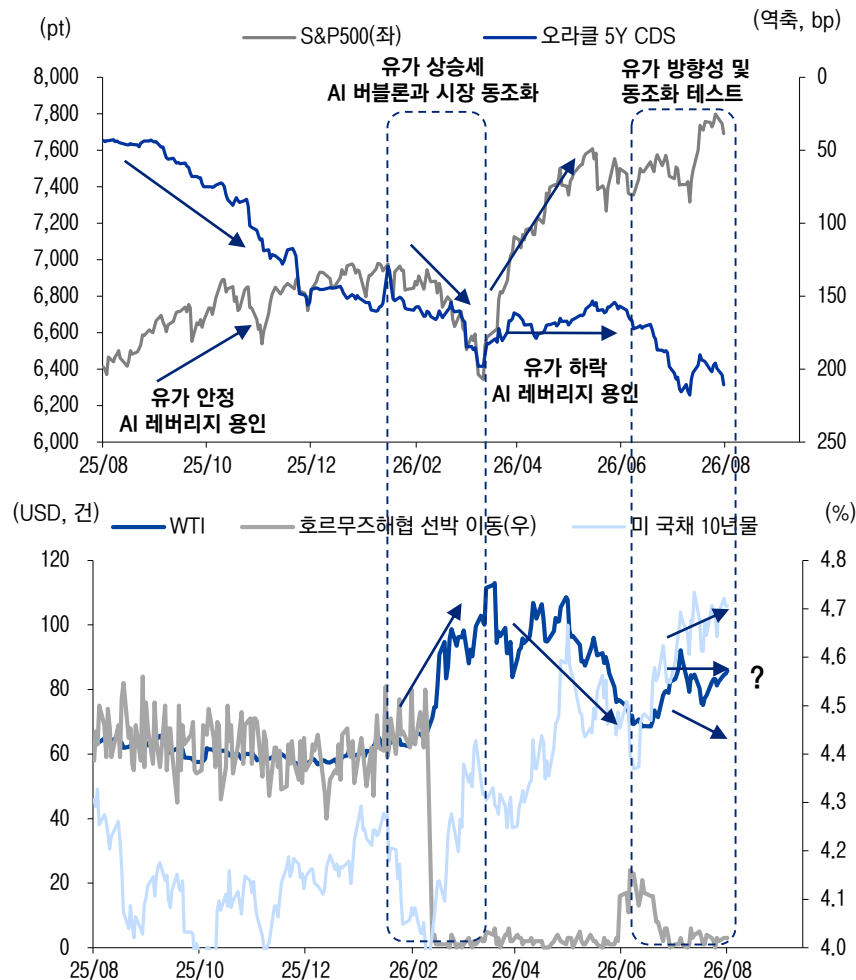
- 8월 글로벌 증시는 경기 모멘텀의 회복과 실적 확산, 그리고 AI 사이클의 지속가능성 증명이 반등세를 이끌었음. 그러나 지속되는 미 장기물 금리의 압력과 소매판매 쇼크, 그리고 중동 불확실성은 시장의 기준을 엄격하게 만들
- 시장은 엔비디아의 순환 금융과 빅테크들의 레버리지를 기반한 AI버블론을 이미 인식한 상태. 다만 r(금리, 비용)과 g(경기, 성장)의 상대적 우위 여부, 즉 매크로 환경에 따라 주가에 선택적으로 반영
- 이란 전쟁으로 유가의 방향성이 상승 국면이던 26년 초, AI 버블론 우려와 시장이 동조화. 최근의 경우에도 유가 방향성 테스트 구간에서 일부 동조화 흐름
- 그 외의 유가 하락 및 안정화 기간에서는 변동성의 단기 방향성만 동일
- 엔비디아 실적을 호재로 인식할지, 또는 AI 사이클의 비용과 버블로 인식할지 여부는 대외 환경 개선에 달려있음. 다만 현재까지의 양상은 부정적이라 판단

일주일 사이 급격히 하락한 Citi 서프라이즈 지수



자료: Bloomberg, LS증권 리서치센터

AI 버블론은 버틸 수 있는 시장, 매크로 불확실성까지는 버겁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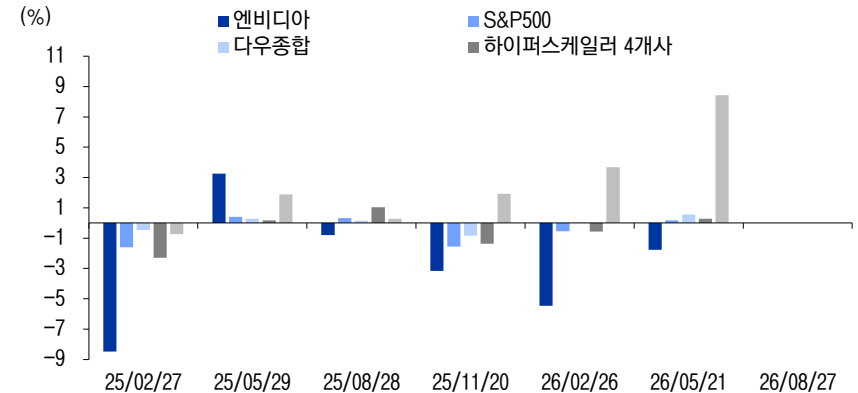


엔비디아 실적, 늘 좋았으나 박했던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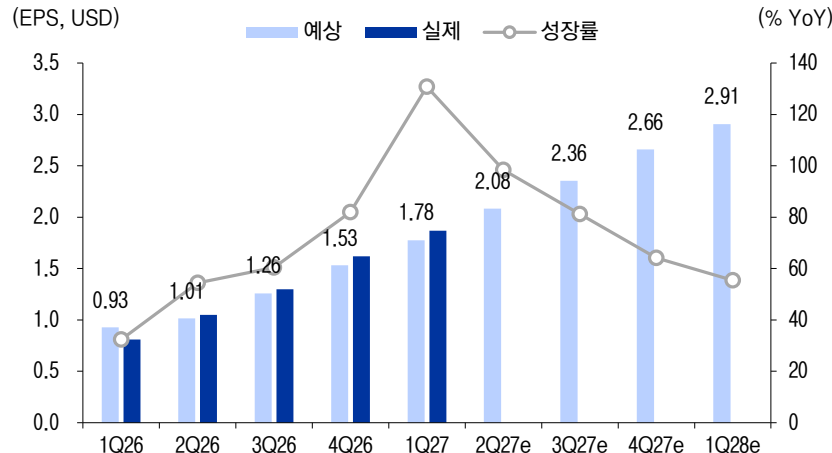
● 언제나 좋지만 주가 반응은 안 좋았던 엔비디아 실적

- 엔비디아의 2FQ27 컨센서스는 EPS \$2.08, 매출 \$91.9B으로 다시 한번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. FY2027 \$300B 이상, FY2028 \$500B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는 만큼 미래 이익에 대한 확신이 존재
- 그 외 루빈 울트라 등과 같은 신제품 로드맵, AI 플랫폼 생태계 확장, CPU와 LPX(추론 가속기)의 매출 기여 기대, 주주환원 계획 등이 주요 관전 포인트
- 기대감 높고 불거리 많은 실적. 그러나 최근 8개 분기에서 7개 분기 주가 반응 안 좋았음. 이미 높아진 기대치와 제한적인 추가 마진 상승 등이 요인
- 더해 엔비디아의 이익이 AI 사이클단에서 비용부담으로 느껴 질만큼 거대해짐에 따라 시장과 베타화. 또한 AI 순환금융의 중심에 있다는 인식이 실적 외 AI 버블론과 매크로 환경의 주가 영향력 확대

엔비디아 실적 발표 직후 1D 주가 반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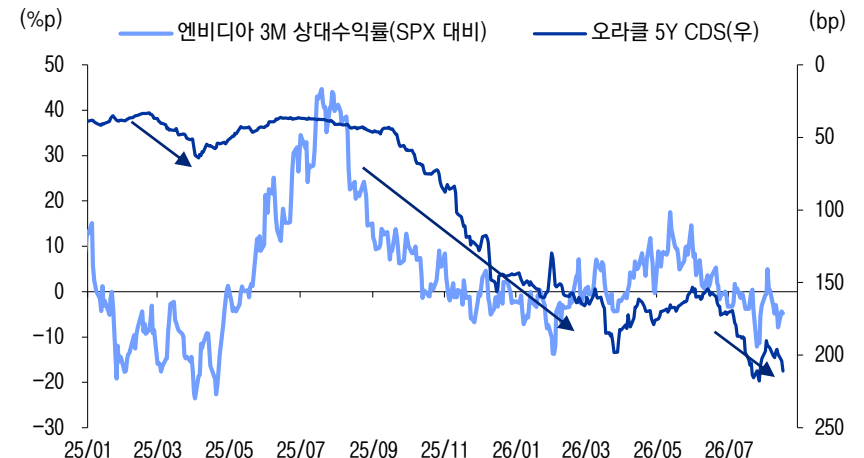


EPS 컨센서스와 성장률 전망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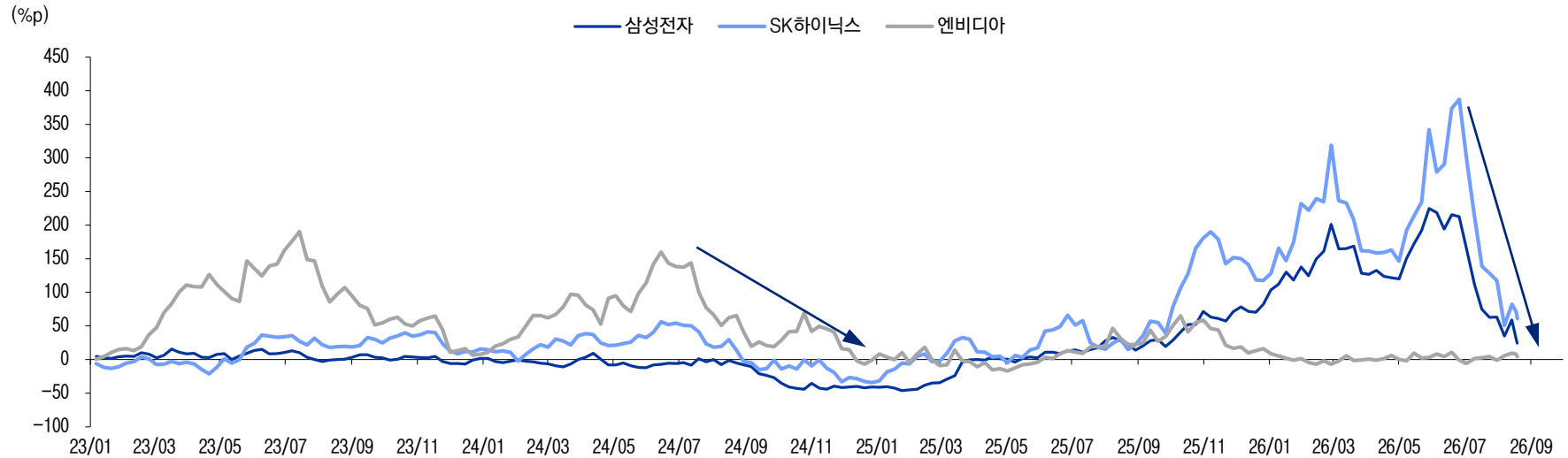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FnGuide, LS증권 리서치센터

엔비디아는 AI 버블론의 중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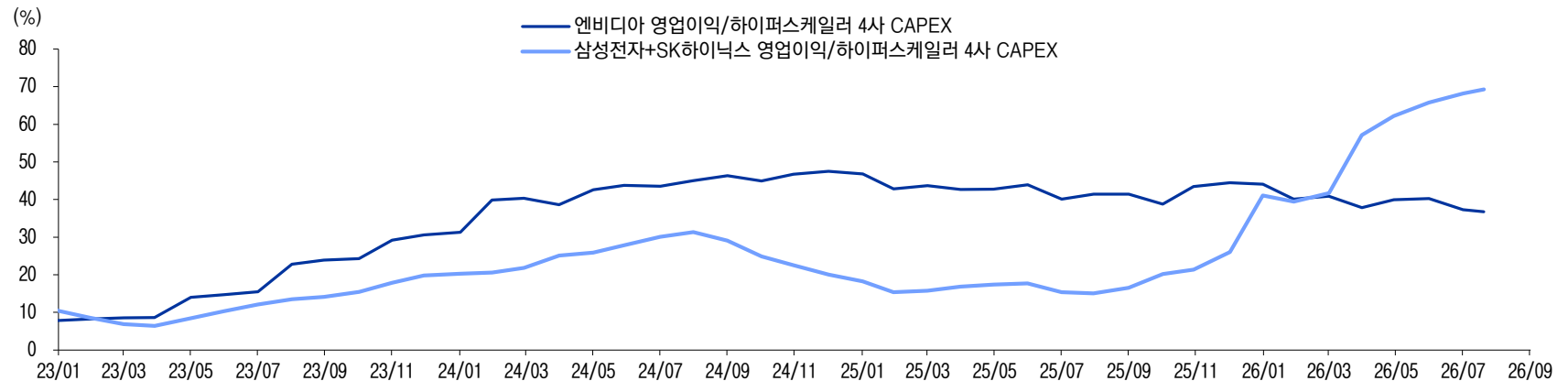


AI 사이클을 헤치는 이익 규모 = AI 사이클 지속가능성과 동조화

엔비디아,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벤치마크(S&P500) 초과 수익률(6M 수익률 기준)



엔비디아,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주는 부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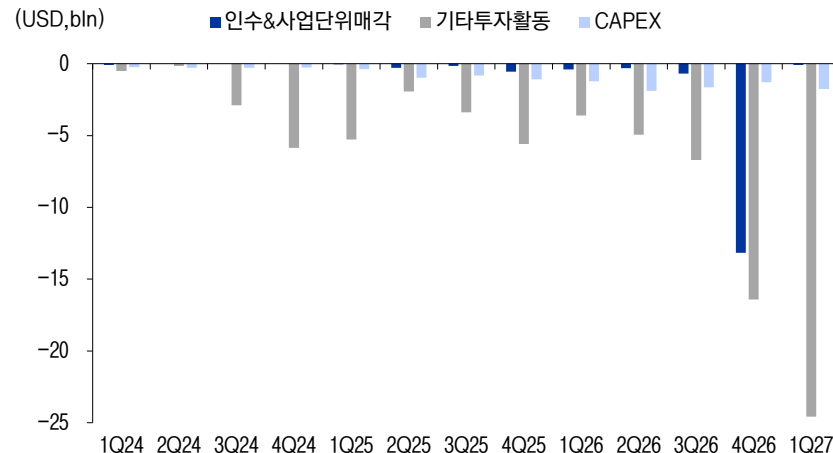


엔비디아보다 파트너사에 돌아갈 스포트라이트

● 엔비디아의 또다른 관전 포인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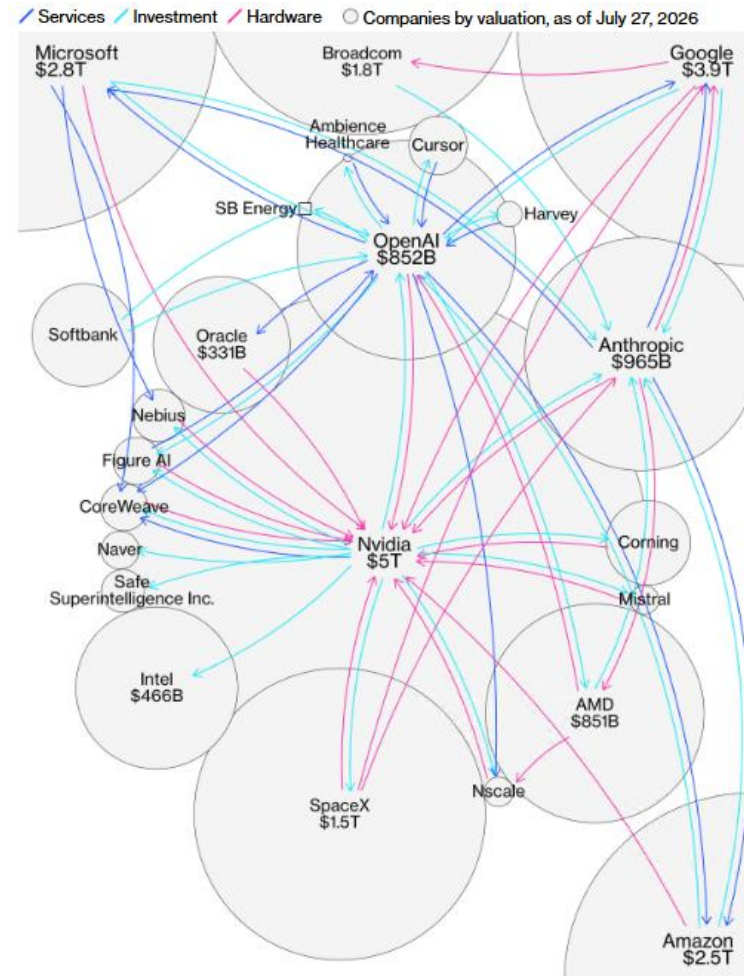
- 하이퍼스케일러들이 CAPEX 상향으로 AI 사이클을 증명한다면, 엔비디아는 투자 활동과 M&A로 AI 사이클의 지속가능성을 지탱
- 빅테크들의 CAPEX 확대가 엔비디아, 메모리 등의 호재인 것처럼 엔비디아의 견조한 FCF와 이익은 엔비디아보다 순환금융의 파트너사들, 엔비디아 생태계의 참여자들의 수혜로 해석될 가능성
- 엔비디아가 투자한 광자 관련 업체 루멘텀과 코히런트는 5/21 엔비디아 1FQ27 실적 이후 각각 +11.1%, +5.9% 상승
- 코어위브, 네비우스를 비롯 뉴스케일파워와 코닝 등도 엔비디아 어닝 서프라이즈 당일 주가 상승

엔비디아 투자관련 현금흐름



자료: Bloomberg, LS증권 리서치센터

엔비디아 중심의 순환 금융 구조 - Bloomber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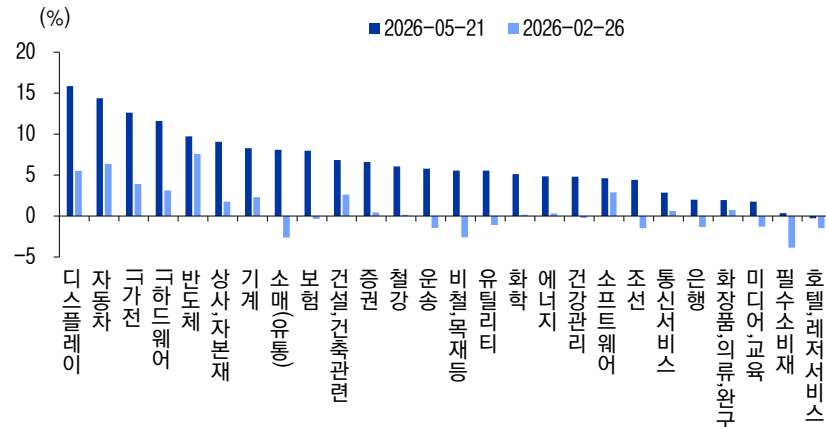


국내에도 확장된 엔비디아 생태계 참여자들

● 로봇, 전력, 냉각/공조, 반도체 장비, 건설, 2차전지

- 한국 증시에서도 반도체만 엔비디아 실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닌, 한층 넓어진 AI 밸류체인 전반의 긍정적 주가 반응으로 연결될 가능성에 주목
- 26년 들어 엔비디아 실적 발표일 상위 반응은 한미반도체(장비), LG전자(냉각), 현대모비스(로봇), 현대건설, 대우건설(건설), LS ELECTRIC(전력기기), 삼성에스디에스(S/W) 등으로 확산
- 특히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이 구체화된 그룹의 반응 두드러짐. 이중 최근 파트너십 부각된 LG와 두산 그룹 종목들의 긍정적 주가반응에 주목할 필요
- LG의 경우 LG전자의 CDU(냉각), CNS 데이터센터, 그리고 LG이노텍의 로봇, 전장을 비롯해 그룹 전반에 걸쳐 전력, 에너지, 네트워크 등의 수혜 부각
- 두산도 두산에너지빌리티의 원전/가스터빈, 두산로보틱스의 로봇, 두산전자BG의 반도체 장비 등 부각

KOSPI 섹터별 엔비디아 실적 당일 반응



최근 엔비디아 실적 KOSPI200 종목 반응

기업명	8/19 기준 수익률		엔비디아 1Q27, 4Q26 실적 1D 수익률		
	1W	1M	26/05/21	26/02/26	평균
한미반도체	1.6	-8.9	15.7	28.4	22.0
LG전자	-1.7	12.6	29.8	10.1	19.9
현대모비스	2.1	5.6	25.2	12.7	19.0
LG이노텍	-0.2	-9.7	10.3	20.0	15.1
LG디스플레이	-5.2	-7.9	17.4	7.0	12.2
LG	0.6	11.5	19.3	3.5	11.4
대우건설	-3.5	13.5	6.4	14.9	10.6
LS ELECTRIC	-3.1	6.3	13.8	6.6	10.2
SK스퀘어	-2.0	-17.2	14.6	5.0	9.8
삼성에스디에스	-4.0	13.4	12.4	7.1	9.7
SK하이닉스	-0.3	-18.6	11.2	8.0	9.6
현대차	1.1	-2.6	12.5	6.5	9.5
기아	-1.9	-11.2	12.4	5.1	8.7
삼성물산	-2.9	0.3	13.0	3.8	8.4
한온시스템	-9.7	0.0	11.0	5.6	8.3
LG씨엔에스	-8.2	9.2	12.6	3.9	8.3
삼성전자	-3.1	-2.9	8.5	7.1	7.8
DB하이텍	-1.6	-14.6	11.7	3.4	7.6
효성중공업	0.6	4.3	10.1	4.9	7.5
현대글로비스	1.9	7.9	10.9	3.6	7.2
SK	1.1	-5.0	9.5	3.3	6.4
두산	-4.9	-0.8	8.3	4.3	6.3
현대건설	2.4	17.7	8.0	4.4	6.2
코오롱인더	-2.5	1.7	7.8	4.4	6.1
카카오페이	-6.1	0.9	5.4	6.6	6.0
삼성SDI	0.3	12.1	8.1	3.7	5.9
삼성E&A	-1.6	18.7	8.2	3.5	5.8
대한전선	-4.9	1.1	7.7	4.0	5.8
카카오	-5.4	4.2	4.1	7.0	5.5
HD현대일렉트릭	-3.8	-5.7	6.6	4.3	5.4
태광산업	-3.5	2.2	4.5	4.7	4.6
한솔케미칼	-13.3	-17.2	3.6	3.5	3.5

주: 종목별 반응은 2026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주가 수익률의 평균치로 정렬. 2회 실적 발표 중 한 번이라도 +3% 이하의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제외
 자료: Bloomberg, Fnguide, LS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황산해).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-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